

브라질 잎담배 생산과 ProfiGen의 육종 현황

정 윤 화

KT&G 중앙연구원

브라질은 한반도의 38배, 남한의 85배인 남미 최대국가로 커피, 바나나, 오렌지, 사탕수수, 코코아, 옥수수, 담배, 목화등 생산량이 세계 1~3위에 있는 유일한 농업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브라질에서 담배의 경작기절은 9월~2월이며, 담배재배에 적합한 환경으로 토양이 비옥하고 배수양호하며 충분한 강수량과 많은 일조량이 잎담배 생육에 호조건이다. 2003년에도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잎담배 생산국이 되고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잎담배 생산과 수출 전략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높은 나라로 1999년부터 생산량은 증가되고 kg당 가격은 낮아져 우리의 잎담배 생산에 가장 위협적이다.

브라질에서 제품담배의 유통은 정상적인 거래(legal)가 67%, 불법거래(illegal)가 33%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브라질 남부의 담배 주산지는 세계 주요 담배회사들의 각축장으로 품질을 높이면서 생산비를 최저로 낮추는 경쟁이 치열한 현상이다. 원료엽은 주로 원료공장이나 브라질 주재 외국 회사와 농가의 계약재배로 생산되고 있으며, 종자의 공급과 재배방법(시비, 농약, 제초제, 성숙 촉진제 등)은 현지 주재원의 지도에 따르고 있다.

브라질에 있는 ProfiGen사는 담배종자 생산 및 판매 그리고 신품종을 육성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ProfiGen Research Station의 신품종 육성과 주요 육종 목표는 니코틴 전환형 제거 및 니트로스아민(TSNA) 감소, 생력재배형 담배, 성숙균일, 건조용이성, 그리고 주요 병해의 저성향 등이 육종목표였다. 유전자원의 보존과 관리는 육종목표에 맞게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으나, 대외비밀로 취급되었고, 품종 육성 및 보급에 필요한 원원종(breeder's seed), 원종(foundation seed) 및 보급종자(certified seed)는 정밀하게 관리되었다.

앞으로 담배 육종은 1대잡종 품종의 육성이 활발히 진행되고, 1대잡종(F1 hybrids)의 보급전망은 담배종자회사의 상업적인 측면과 UPOV 대응으로 임성품종보다 증가될 것이며, 1대잡종 품종의 생산가격은 1kg종자를 생산하는데 약 2,350\$, 임성종자는 600~1,000\$ 정도로 파악되었다.

II. 學術發表會